

정례브리핑

2020.9.14(월)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깐 안경에 서리가 끼어서 벗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2시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7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는 통일부에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2020 통통청년단' 발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통통청년단'이란 30대 이하 근무경력 4년 이하의 부내 직원들로 구성된 학습 모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더플라자호텔에서 전직 통일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간담회는 모두 발언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9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9.19 평양선언 2주년 기념 통일정책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3시에는 회담본부에서 '2020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 포상 전수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일정만 공개가 됩니다.

다음은 차관 일정입니다.

오늘은 부내에서 업무를 보고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8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는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되는 '2020 DMZ 평화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2주년이 되는 날인데 이와 관련한 논평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오늘이 연락사무소 개소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공동연락사무소 기능이 중단되어 남북 간의 기본적인 연락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남북연락사무소가 재가동되고 남북 간 연락이, 연락 채널이 복원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에서 '격노'라는 우드워드 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들도 공개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통일부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입장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아직 발간이 되지 않은 외국 언론인의 제작물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난 8월 말에 남북 물물교환이 약간 제동이 걸렸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북측과 어떤 물물교환을 하겠다면서 대북접촉 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나요?

<답변> 그것 추가적으로 대북접촉 신고가 추가된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 사항들은 보안을 위한 검토 사항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개성공단... 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측 인원들이 지금 여기 본부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은 그 조직은 계속 유지할 생각인지 아니면 혹시 조만간 조직개편 같은 게 있는지.

<답변> 현재 조직은 유지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논의가 진행이, 논의가 지속돼야... 필요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9.19 2주년 기념해서 아까 일정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관님도 포럼 참석하신다고 하는데 통일부 차원의 주관하는 행사나 그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답변> 통일부에서 별도로 주관...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질문> 지난주에 사무검사 관련해서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통일부는 협의가 이루어진 사무검사였다고 하고 반대편에서 '기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어떤 게 맞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그 전에 발표드린 것처럼 통일부는 25개 법인에 대해 사무검사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하였고 대상 법인과 일정 협의를 거쳐서 8월 중순부터 사무검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 코로나 위기단계가 2.5로 격상되면서 대상 법인들과 협의하여 사무검사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부터 일정 조정 및 협의가 이루어진 법인들을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체 측의 입장, 또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사무검사를, 사무검사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온 것으로, 사무검사를 중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습 재개했다는 것은 이 말이 맞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주장하고 있던, 기습 재개를 주장하고 있던 그 2개 단체도 당초 사무검사 일정 조정에 합의를 하였고 사무검사 당일, 당일에 현장에서 갑자기 사무검사 불응을 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 단체들과도 사무검사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